“증도가자, ‘증도가 인쇄 활자’ 아니다”

문화재위, 13일 ‘지정 부결’ 결의… 7년 논란 종지부

2010년 9월 1일 남권희 경북대 교수는 세상이 놀랄만한 주장을 한다.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인 ‘증도가자’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튿날 서울 종로 다보성고미술은 증도가자 실물 12점을 곧바로 공개한다.

‘증도가자’는 보물로 지정된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증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했다는 활자다. 보물 증도가(보물 758-1호)는 1239년 제작된 목판으로 찍은 책으로, 이전에 금속활자로 찍은 서적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인정되면, 기존에 알려진 최고(最古) 금속활자 인쇄물인 〈직지심체요절〉(1377)보다 최소 138년 앞서는 금속활자 문화재가 돼 학계는 물론 불교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후 여러 언론을 통해 오르내리며 논란과 유명세를 탄 증도가자는 2011년 보물 지정 신청이 이뤄진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2013년 지정 보류 결정 이후 각 학술단체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나서 증도가자의 진위 여부를 위한 연구 조사를 했다.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은 모든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까지 했다.

세상에 공개된 뒤부터 7년, ‘증도가자’는 “보물 지정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결론지어졌다. 증도가자 7년 논란은 ‘지정 부결’로 마무리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4월 13일 국립고궁박물관서 간담회를 열고 “증도가자에 대한 안건으로 문화재심의위원회 동산분과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지정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체 · 주조 · 조판 등 조사 통해
“보물로서 가치 없다” 결론내
출처 · 소장경위 불분명 이유도
‘고려금속활자’ 가능성 열어둬
다보성 측 “자료 보완, 재심의”

문화재청이 밝힌 부결 이유는 “증도가자로 지정 신청된 활자는 서체 비교, 주조, 조판 등 과학적 조사 결과 〈증도가〉를 인쇄한 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불분명한 점과 다보성고미술 측이 제기한 금속활자와 관련된 청동수반 · 초두와의 비교 조사가 불가능한 점도 ‘부결’ 결정의 이유였다.

황권순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장은 “서체 분석 결과, 대조집단인 임진자 활자 복각본에 비해 평균 유사도는 낮고, 유사도 편차의 범위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일관된 경향성을 찾아보기도 어려웠다”면서 “흠형 · 흠날개형 · 혼합형 조판 실험에서도 현 증도가자 활자로는 조판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지정 신청된 금속활자가 고려시기 제작된 유물인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황 과장은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비롯한 과학적 분석에 의하면 고려 시대에 제작된 금속활자일 가능성은 있다”면서 “신청자와의 협의를 거쳐 청동초두, 수반을 분석하거나 고려금속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될 경우 지속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증도가자’의 소유자인 다보성고미술 측은 고려금속활자로의 재심의 등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결과 발표 현장에 있던 다보성고미술 관계자는 “자료를 보완해 재심의를 하려 한다”면서 “우선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증도가자 논란 7년 일지

2010년
9/1 남권희 경북대 교수, 세계 최고 금속활자 ‘증도가자’ 발견 주장
9/2 다보성고미술, 증도가자 공개

2011년
10/6 ‘증도가자’ 101점 문화재청 보물 지정 신청(신청자: 이정애)

2012년
10/11 전문가 자문회의. 진위 결정 후 지정 절차 진행키로 결정

2013년
2/14 문화재위원회에 ‘증도가자’ 안건 상정하나 지정 보류
10/10 문화재위원회, 종합학술조사 추진 결정

2014년
12/19 경북대 산학협력단,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 연구용역 완료

2015년
2/12 문화재위, 지정 조사 실시키로 의결
6/4 증도가자 지정조사단 구성
10/2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조 고인쇄박물관 금속활자 7점 위조품” 발표

2016년
12/30 문화재청, 그동안의 조사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 의견 수렴 진행

2017년
4/13 문화재위원회, 증도가자 보물 지정 ‘부결’ 결의



아기부처 씻기듯, 마음도 깨끗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 11일 서울 조계사에서 아기부처 관불의식이 봉행됐다. 관불의식은 부처님 탄생을 찬탄하고 우리 마음속 탐욕과 번뇌를 씻는 의식이다. 의식에는 주지 지현 스님과 국 · 차장 스님, 신도회장단 등 200여 신도들이 참석했다. 관불의식을 집전한 지현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우리 마음 속의 갈등요소를 모두 씻어버리고 차별이 없는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직선제’ 일단 STOP

중앙종회서 2표 차로 부결

불교계 최초의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으로 관심을 모았던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이 중앙종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설운)는 4월 7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28회 임시회’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개정을 위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종회에는 45명이 참여했으며 선거법 개정안에는 찬성 27표, 반대 18표가 나왔다. 종법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6명 중 과반인 29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이날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도산 스님은 직선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종무방침연설에서 “종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차기 집행부 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 퇴진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 또 스님은 종정 스님의 재가와 함께 원로회의, 전국종무원장회의,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결의됐음을 강조했다.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상정 후 종회의원 스님 중 일부는 종헌 개정 선결 등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다.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는 의원들에 대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란 종회 내 비판이 나오자 종회의원 스님들 간에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격론 끝에 비밀투표에 붙여져 결국 재적의원의 과반을 넘지 못했다.

한편, 태고종 26대 총무원장 선거는 7월 경 치러질 예정으로 총무원장 도산 스님이 임기 내 직선제의 지속 추진을 밝힌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노덕현 기자**

대학 MT를 템플스테이로!

문화사업단, 서울대 등과 ‘MT템플’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은 서울대, 동국대, 한국외대, 한국체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MT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대학 MT서 간혹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템플스테이를 통해 올바른 공동체 문화를 선사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해남 대흥사와 전남 백양사에서는 일찌감치 MT문화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대흥사는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학생들과, 백양사는 호남대에 재학 중인 중국 · 일본 · 베트남 유학생들과 템플스테이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대는 종교학과 학생들이 5월 13~15일 봉선사로, 동국대는 환경동아리 ‘숲은’ 학생들이 5월 6~7일 묘각사로, 한국외대는 사학과 학생들이 5월 11~12일 법주사로, 한국체대는 무용과 및 건강관리학과 학생들이 5월 27~28일 불국사로 MT템플스테이를 떠난다. **박아름 기자**

‘화엄경변상도’ 등 성보 한 데 모인다

송광사성보박물관, 4월 22일 확장 개관 특별전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진화)는 4월 22일 성보박물관을 확장 개관하고, 특별전시 ‘새롭게 문을 열다!’를 개최한다.

송광사성보박물관은 200년 역사로 국보 4건, 보물 27건 등 2만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2011년부터 문화재청, 전라남도청, 순천시청의 지원을 받아 약 8,000㎡에 이르는 신축박물관을 건립, 22일 오전 10시에 개관식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열리는 특별전시 ‘새롭게 문을 열다!’는 송광사가 보유한 국보 및 보물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전시로 대중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4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성돼 국보 3건, 보물 16건, 등록문화재 2건 등 총 120여점 유물을 선보인다.

1전시실 ‘송광사의 역사’에선 보물 제572호 수선사형지기와 노비 문서를 비롯해 송광사의 창건과 중창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송광사성보박물관 전경

2전시실 ‘법, 불’에선 보물 제175호 경패, 보물 제204호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삼현원찬과문, 보물 제1467호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유물까지 송광사 소장 경전 관련 유물들이 대거 선보여질 예정이다.

3전시실 ‘불, 승’에선 국보 제314호 화엄경변상도와 보물 제1368호 영산전 팔상탱화 등 명품 불화들이 전시된다. 특히 송광사 근대 고승인 효봉 스님, 구산 스님 관련 유물과 송광사의 3대 명물 중 하나인 능견난사도 만나볼 수 있다.

4전시실 ‘16국사’에선 송광사의 정신인 16국사 행적과 관련 유물 국보 제42호 목조삼존불감, 국보 제43호 혜심고신제서, 보물 제1376호 티베트문법지 등 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획전시실에선 송광사성보박물관의 역사와 성보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스님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옛 성보박물관 성보각 등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6월 4일까지 진행되며, 화엄경변상도(국보 제314호)와 목조삼존불감(국보 제42호)은 5월 3일까지만 전시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9~11시, 오후 12~6시까지다. 종료 30분전까지 입장 가능.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봉은사대책위, 한전부지 공청회 21일 개최

서울시청서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 과제’ 주제

현대차 글로벌 신사옥(GBC) 건립과 관련해 조계종 측 주최 공청회가 열린다.

조계종 봉은사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지현 · 원명)는 4월 21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청 8층 다목적홀서 ‘한전부지 개발과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에 따르면 공청회는 봉은사 소유 토지 10만 평에 대해 1970년 당시 정권의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부당하게 빼앗긴 역사의 진실 규명에 무게를 뒀다. 또한 해당 토지 일부인 한전부지에 계획 중인 현대차 신사옥 개발로 인한 봉은사 문화재 훼손 방지와 역사문화수행환경 보존 대책 마련도 모색한다.

이번 공청회는 현대차 신사옥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 당사자인 봉은사, 인허가권자인 서울시, 개발사업자인 현대자동차의 소통과 공의 수렴을 통해 조화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제정 스님(불교문화재연구소장), 김봉석 변호사(금상), 이병인 교수(부산대), 홍석환 교수(부산대)가 발제를 통해 한전부지 역사적 의미와 역사문화환경 보존방안, GBC개발 전반에 대한 문제진단과 대안 등을 다룬다. 또 주경 스님(조계종 기획실장), 박부영 기자(불교신문), 서울시 동남권개발사업단, 현대차 신사옥추진사업단 등이 참여해 토론한다. **윤호섭 기자**

